

농축산업이 특수외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종사하는 신선노름의 장인가!



한 희 풍한농장 대표

3D 산업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가에게도
움을 주기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
따른 외국인 고용설명회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
었다.

타 산업은 농업보다 비교적 자본 및 작업 구성
원이 많고, 기계적이고, 규칙적 작업으로 복잡
한 의사전달 없이도 단순작업만 시킬 수도 있
다. 그러나 농축산분야는 열악한 환경에서 농장
주인조차 1인 10역을 해야 하는 등 작업자 한 사
람이 다양한 일을 해야 하고, 생명체를 다루고
있어, 언어소통부실에 의해 한번의 돌이킬 수
없는 작업 실수로 일년 수확을 망칠 수도 있는
위험성이 있다.

그런데 금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

언어소통, 문화, 생활습관이 전혀 판이한 인도
네시아와 스리랑카 2개국 근로자만 복잡한 장거
간의 구인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.

특히, 근로자는 농장을 그만둘 때 대부분 후임
자를 확보할 시일도 주지 않고 일하다가 싫으면
당장 그만둘 때가 태반인데 그렇다고 그들을 강
제로 근무시킬 근로기준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.
이런 시간이 급한 지경인데 외국인 고용허가제
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고
나서 구하지 못할 경우,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
여 인력공급국가에 구인절차를 거쳐 입국하여
교육시켜, 농장에 근무케 한다고 한다. 생명을
가진 동물이 그 동안 사료도 안 먹고, 계분도 발
생하지 않고, 계란도 안 낳고 그때까지 기다려

주나? 이런 절차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가 공급될 때는 이미 농장은 망가지고 있을 것이다.

반면에 우리와 의사소통이 쉽고, 이미 입국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, 당사자간에 직접 면담하여 바로 취업결정을 할 수 있고, 구인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방문 초청비자로 입국한 수많은 체류연장자인 우리 중국 교포는 음식서비스업, 건설업 분야에만

취업할 수 있게 한다면 농축산업을 특수외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종사하는 신선노름을 하고 있는 산업종으로 아는지 답답한 심정이다.

이러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 우리의 농업정책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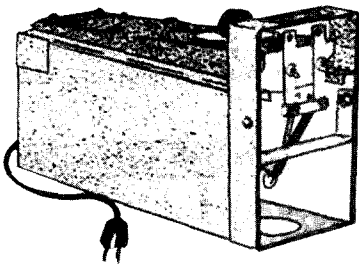


구는 어디이며, 누구인가? 이렇게 농업이 무엇인지 모르고도 이런 기구를 앞세워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, 앞으로 개방화하겠다는 이 나라 농업구조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. **양계**

부리절단기 ♣ 님플 전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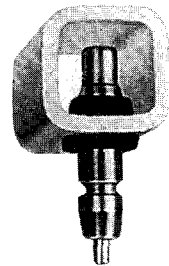
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

부리절단기(국산품)



※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.

님플



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

보령산업

전화 : (02)461-7887(주·아)

휴대폰 : 017 - 743 - 6887